

제1회 녹용과학심포지엄 “대성황”

-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 재확인 -

“녹용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취득, 과학영농 실현의 초석 삼자”

지난 12월 4일 본회(회장:김수근)와 건국대학교 한국녹용연구센터(소장:전병태)가 공동주최한 “제1회 녹용과학심포지엄”이 350여명의 양록인과 녹용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과학적 접근과 다양한 이용방안을 모색, 절편녹용 수입 등 본격적인 국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 4명의 녹용관련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결과 및 진행과정, 향후 전망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4명의 연구자들은 각각 ▲ 녹용의 생산과 이용(전병태교수/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녹용의 생리활성 물질(신국현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녹용의 약리학적 성분(전길자교수/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한의학에 있어서 녹용의 임상적 이용(안덕균박사/자생생명공학 연구소 소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녹용의 품질차별화 방안, 녹용 효능의 현대과학적 증명, 임상적 이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각자의 주제발표 후에는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다.

양록협회 김수근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그 동안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한 다방면의 결과들을 발표하고 이를 활용하여 양록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녹용의 한의학적, 의학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 양록업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양록연구분야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꿈벌사슴목장(이성우), 명천사슴목장(대표 배소식), 창원사슴목장(대표 황희복), 호산사슴목장(대표 허만복), 환희엘크사슴목장(대표 유현재)에게 한국녹용연구센터 지정 연구 목장 현판이 수여됐다.

전병태 소장은 “한국녹용연구센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연구 목장과 더불어 오늘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양록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양록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삼아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양록**